

사회복지시설 탐방 32 쉼터선교복지재활원 원장 김 영 실

노인, 장애인의 自立 기반 키웁니다

“쉼터선교복지재활원은 갈 곳 없는 노인, 뇌성마비·정신지체 장애인이 자립의 꿈을 키워가며 생활하고 있는 장애인복지 시설입니다.”

포천시 자자동 404-1번지에 위치한 쉼터선교복지재활원(원장 김영실 목사)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개혁 십자가복음교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설로 2001년부터 포천에 정착해 교회와 재활원이 함께 시작됐다.

쉼터선교복지재활원을 운영하고 있는 김영실 목사는 부모 없이 자란 어린 시절부터 신앙생활을 하며 사역활동으로 복지시설의 자원봉사를 하며 준비를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던 중 지난 2000년 신학대학을 졸업해 안수를 받은 후 목회활동을 펼치고 있다.

시설 운영은 김영실 목사와 5명의 자원봉사자들이 매일 1명에서 2명씩 도움을 주고 있다.

쉼터선교복지재활원은 현재 21명의 노인 및 장애인이 입소해 있으며, 미신고 시설로 내년 10월 신고시설로의 전환을 준비하고 있다. 시설의 정원은 30명으로 현재 입소자들은 대부분 1인 1실에서 생활하고 있으며, 일부 3인 1실에서 생활하고 있다.

김영실 원장은 “현재 입주해 있는 토지의 매입이 아직 해결되지 않아 신고시설로의 전환은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며 “입소해 있는 노인 및 장애인들이 더욱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쉼터선교복지재활원에 입소한 21명중 실제 정부지원 생활보호 및 장애인 수급대상은 7명이며 20만원의 실비를 지급하기로 하고 입소한 장애인은 2명 정도다. 하지만 실제 입소한 장애인은 최솟값 미만 비용은 차를 상태로 가정형편이 어려워 시설에서 무상보 호하고 있다고 한다.

김 목사는 “정부지원 수급대상이 전체 인원의 절반도 되지 못하고 있어 시설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한달 평균 500여 만원의 생활비가 들지만 대부분의 경비는 독자가 및 교회, 형제, 선후배들에게서 조달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현실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어 “가장 안타까운 것은 혈육이 있기 때문에 정부지원을 받지 못하는 노인 및 장애인이 가장 안타깝다”고 말했다.

쉼터선교복지재활원은 부산시 지역의 일부 사업가와 경기도 구리시 인창제일교회, 서울 상계동의 조은교회, 형제, 선후배 등으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다.

또한 성공회 나눔의 집에서 식사하고 있는 푸드뱅크를 통해 음식을 지원 받기도 한다.

김 목사는 “푸드뱅크의 음식 외에 일반 음식점의 음식은 지원하고 받지 않는다”며 “이유는 입소



쉼터선교복지재활원은 갈 곳 없는 노인, 뇌성마비·정신지체 장애인이 자립의 꿈을 키워가며 생활하고 있는 장애인복지 시설로 입소자들의 자립의지를 키워주기위해 노력하고 있다. (원안은 김영실 원장)

자들에게 조리료를 쓰지 않는 음식을 제공해 주기 위해서라고 말했다.

재활원이 가장 필요로 하는 자원봉사는 목욕봉사로 특히, 남성 봉사자들의 지속적인 참여를 바라고 있다. 입소자들이 주로 노인과 장애인으로 일주일에 최소한 2일 정도는 목욕을 시켜주어야 하는데, 봉사자들이 주로 여성이라 목욕에는 다소 무리가 따르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이 시설에는 선당동 로즈마리 미용실에서 매월 1회 이·미용봉사를 실시하고 있는

것이 봉사의 거의 전부였다. 김 목사가 시설을 운영하는 데 있어 가장 중점으로 삼는 방침은 자립정신이다.

“가장 우려되는 것은 입소자들이 남에게 바라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라며 남에게 바라는 마음이 생기면, 의지를 하게되고 결국 장애인으로 평생 살아야 하기 때문 이란다.

남에게 의지하는 마음을 극복하게 하기 위해 손가락 넣는 부업을 실시하고 있는 김 목사는 대부분이 혼자서 자신을 추릴 수 없는

장애인이지만, 교육이 가능한 장애인에게 손가락 부업을 시키고 거기에서 얻은 수익의 전액을 통장에 넣어주며 미래의 독립을 위한 토대를 마련해 주고 있다

담당없이 24시간 개방하고 있는 쉼터선교재활원은 포천 사회의 따뜻한 지원을 요청하며, 각종 정보를 친절히 제공해 주고 있는 선당동사무소 관계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기도 했다.

문의 : 031-536-1477, 011-1716-1355(김영실 원장) 지혜배 기자 94spice@hanmail.net



포천 심터

진실보도의 목적

석혜승
보문정사 주지

황우석 교수 사태로 온 나라가 진실 게임에 몸을 맡기고 있는 듯하다. 국민들은 매 시간 말이 바뀌고 있고 반전의 반전을 거듭하는 언론의 보도를 접하면서 이제는 언론도 도저히 못 믿겠다며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진실을 규명하는 것은 언론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며 사명이다 하지만 진실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언론자들도 갈팡질팡하는 것이 안타깝기까지 하다.

진실은 진실 그 자체로 의미가 있다 라는 말도 있다. 맞는 말이다. 언론에서 가장 강조하는 부분이기도 하다. 그런데 이 진실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진실은 정확한 사실을 바탕으로 그 문제의 원인을 규명하여 잘

못된 일을 개선하고, 잘 된 일은 계속 지향해 가자는 데 의미가 있다. 즉 진실보도는 사실보도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 가령 누가 화장실에서 불 일을 봤다라고 하자. 불일을 봤는지 안 봤는지 하는 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몰라도 그 자체를 알리는 것을 진실보도라고는 말하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사실보도라는 것은 원인을 정확히 규명하는데 더 큰 의미가 있지 사실 자체가 큰 의미를 주지는 않는다. 사실을 정확히 알고 그 사실을 바탕으로 문제의 원인을 찾아 잘 잘못을 가리며 개선할 것은 개선하고 지향할 것은 지향해 가는 것 이것이 진실보도의 목적이 아닐까?

필자연락처 031-542-0032

화제의 인물

의정대상·대통령상 受賞 포천시의회 이종호 의원

이종호 의원은 1998년 7월 제3대 포천군의회 의원으로 의정활동 8년여동안 남다른 사명감과 애함심으로 지역주민의 의사대변은 물론 포천시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다.

결핵에 가까운 이 의원의 청렴성은 3년전 부친상 당시 군내 면 소재 인근 석산회사 대표가 50만원을 부의금으로 내놓고 간 것을 뒤늦게 알고 정상적인 부의금으로 볼 수 없으며 정중히 사퇴시켜준 일화는 잘 알려져 있다.

특히 2004년도부터 포천시의회 행정자치위원장으로 근무하며 서 업무추진비로 매월 약 70여만원을 사용하면서도 공적인 업무에는 일절 공금을 사용하지 않아서 연말에 집행잔액을 반납한 사례는 공직자들 사이에 고무적인 평가되고 있다.

또 이 의원의 특별한 날을 제외하고는 거의 매일 9시전에 의회에 출근하여 지역주민들의 고충상담과 의정 현안사항을 꼼꼼히 챙겨 집행부에서 주관하는 각종 용역보고회에서는 사전에

전문위원들로 하여금 보고자료를 검토토록 하여 심도 있는 질문을 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그래서 집행부 공무원들 사이에서는 ‘이종호 의원만 OK하면 모두가 OK’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꼼꼼한 스타일도 정평이 나 있다.

이 의원의 이같은 의정활동의 공을 인정받아 2005년 10월 13일 여의도 국회의원 회관에서 개최된 시민일보 주관 제3회 의정대상 시상식에서 영예의 대상을 수상했으며 구랍 15일 경기도에 속의전당에서 개최된 민주평화 통일자문회의 기념식에서도 대통령상을 수상함으로써 2005년도 포천시의회를 빛낸 자랑스런 의원으로 불려지게 되었다.

이종호 의원은 수상소감을 통해 “오직 맑은 바 소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했을 뿐”이라며 “앞으로도 맑은 바 책임을 성실히 수행함으로써 포천시 발전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헌신 봉사하겠다”고 밝혔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구랍 15일 경기도 예술의전당에서 개최된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기념식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한 이종호 포천시의회 행정자치 위원장 부인 노연옥 여사.

“영북면 주민복지 우리가 책임져요”

영북면 목요회 정기회의 개최

구랍 23일 오후 4시 영북면 목요회(회장 배상택 면장)는 면사무소 회의실에서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인사말에서 배상택 면장은 그동안 도와 추진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리며 다가오는 새해에도 보다 진보된 영북면을 위해서 회원여러 분들의 협조와 지원을 당부했다.

이어 회원별 각 활동보고 및 계획을 발표하였고 특히 박동규 노인대학장은 각 학교별 졸업식 날짜와 시간이 같아 자식을 여러 명 두고 있는 부모 및 내빈들도 참석해 문



구랍 23일 오후 4시 영북면 목요회(회장 배상택 면장)는 면사무소 회의실에서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제가 많았다며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였고 이에 대하여 중학교 교장은 올해는 모두 다른 날이라고 즉석에서 답했다. 김미경 주부명예기자 영북면지부장 hsd5333@hanmail.net

함께 하는 복지사회 “사랑으로 떠나요”

지역노인과 사회단체 회원, 공무원 등 50여명 참여

포천시 관인면(면장 이문근)은 구랍 15일 ‘함께 하는 복지사회구현’의 일환으로 지역노인들이 참가하는 “사랑으로 떠나요” 행사를 개최했다. 올 초 생활형편이 어렵고 소외된 노인들과 자매결연을 맺은 관인농협 등 18개 지역 사회단체 관계자들은 이날 결연대상 및 저소득층 노인 30여명을 위해 목욕봉사를 실시했으며, 포천반월아트홀에서 창작소리극 ‘포천벌곡 영광경가’를 함께 관람하고 저녁 식사를 대접했다.

이들은 구랍 5일에도 지역 노인 50여명과 함께 연천 전곡리 구석기축제를 관람하고 지난해 12월에는 안보견학을 다녀오는 등 노인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또 이 같은 “사랑으로 떠나요” 행사 외에도 매일 노인세대를 방문해 말벗을 하고 생활필수품을 제공하는 등 지속적인 후원활동을 펼치고 있다. 전체인구의 17.6%가 65세 이상 노인인구로 이미 고령사회로 진입한 관인면은 전형적인 농촌지역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5%를 차지하는 등 복지대상자의 비율이 다른 지역에 비해 높은 편이다.

따라서 관인면은 노인을 위한 각종 후원 및 문화정착 사업은 물론, 소외된 노인과 주민들 사이의 자매결연을 확대해 ‘함께 하는 복지 관인’을 적극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지혜배 기자 94spice@hanmail.net



포천시 관인면이 구랍 15일 지역노인들을 위해 ‘사랑으로 떠나요’ 행사를 개최했다.

포천시청 김송학 씨, ‘대통령 표창’

제46회 한국민속예술축제 성공개최 기여 공로 인정



포천시청 문화공보담당관실 김송학(사진) 씨가 제46회 한국민속예술축제 및 제12회 전국청소년예술제 성공적인 개최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김송학 씨는 행사계획수립과 진행은 물론, 행사장 조성과 흥보기획에서부터 민속체험장 운영과 자매결연 및 자원봉사제도 운용, 관련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체계 구

축, 내실있는 전야제 및 경축공연 기획, 그리고 안전사고 예방에 이르기까지 최일선 실무자로서 성공적인 행사개최에 기여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포천시는 구랍 10월 1일에서 4일까지 포천종합운동장 일원에서 우리나라 최고·최대의 전통문화제인 ‘제46회 한국민속예술축제’와 ‘제12회 전국청소년민속예술제’를 참가자와 관람객 등 연인원 10만여명 참가하는 가운데 성공적으로 개최함으로써, 우리 전통문화를 고양하고 시민들의 문화적 긍지를 높임은 물론 지역 경제활성화에도 이바지한 것으로 평가받았다.

지혜배 기자 94spice@hanmail.net

“군인 선생님과 함께 공부해요”

8사단 영차대대, 일동면 길명2리 공부방 지원



8사단 영차대대 군인들과 학생, 마을 주민들이 효율적인 공부방 운영을 통해 군·민 간 화합과 교류를 다짐하고 있다.

매주 화·목·토요일이면 일동면 길명2리 마을회관에서 ‘군인 선생님들’ 방문하고 있어 화제다.

길명2리(이장 이광민)는 구랍 9월부터 초등학교와 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마을 공부방을 운영하고 있다. 공부방 선생님은 차를 아닌 장교와 사병으로 구성된 군인들.

입대전 교사, 학원강사, 명문대학생이었던 군인선생님은 인성교육을 거쳐 공부방에 투입되고 있으며 8사단 영차대대(대대장 문동환)의 적극적인 지원 속에 학원, 과외 등 농촌에서는 업무도 내지 못했던 방과후 학습에 도움을 주고있어 농촌 마을의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어주고 있다.

초등학교 6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공부방 교육은 마을 학생 총 25명이 사병과 장교로 구성된 군인 6명의 도움으로 운영되고 있다.

공부방 운영은 올해 영차대대 문

동환 대대장이 부임하면서 가진 주민들과의 간담회에서 의견이 개진됐으며, 부대에서는 적극적으로 병사를 선발해 마을 공부방 운영을 지원했다.

군인선생님들을 위한 교재는 청년회와 노인회에서 구입해 제공하고 있으며, 학생들은 자부담으로 구입하고 있다.

학생들은 평상시에는 수학·영어·과학을 위주로, 시험기간에는 전체과목을 공부하고 있다. 이광민 이장은 “농촌에서는 부모들의 교육열 충족과 과외부담을 줄일 수 있는 기회가 제공돼 군인과 민간인 교류의 좋은 사례로 꼽힐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한편 길명2리 공부방에는 마을회관 준공에 발맞춰 인천청량초등학교 안선도 교사가 동화책 700여권을 기증해 작은 마을문교가 형성돼 있어 주민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지혜배 기자 94spice@hanmail.net

포천중 제44회 박경훈氏 행정고시 합격

포천시의회 박찬익 전문위원 장남



박찬익(26·사진)이 합격했다. 박씨는 신북면 만세교3리(옛

터) 278번지에서 태어나 포천초등학교를 졸업하고 포천중학교, 의정부고등학교를 나와 고려대학교에서 응용생명 환경화학과를 2005년 2월에 졸업한 후 행정고시를 준비해 해왔다.

박씨는 2년 동안 해외연수를 마치고 정부부처 재경분야에 사무관으로 근무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구랍 27일 포천시청 대강당에서는 2005년도 연말정부 선물전달식이 마련됐다.

포천시는 구랍 27일 포천시청 대강당에서 2005년도 연말정부 선물전달식을 개최했다. 연말을 맞아 정부에서 마련한 선물을 소년소녀 가장과 환경미화원 등에게 전달하기 위해 마련된 이날 선물 전달식에는 박윤국 포천시장과 각 실과장 등 150여명이 참석해 마련됐다.

이날 전달식에서 박윤국 포천시장은 참석자들의 한해동안의 노고를 위로하고, 새해에도 포천시 발전을 위해 다짐해 노력할 것을 당부했다.

지혜배 기자 94spice@hanmail.net